

고조선의 토기

글 _ 최 상 흘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1. 머리말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은 신석기시대로부터 청동기시대를 거쳐 철기시대 까지 오랫동안 존속한 국가로, 주로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한 국가이다^{주1)}. 이 시기는 농경이 정착한 시기로, 당시의 유적인 고인돌무덤의 규모나 부장품 등을 볼 때 지배자와 피지배자와의 계층이 큰 사회임을 알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고조선 전시실을 꾸민 것은 최근의 일로, Fig. 1, 2 에 박물관에서 작성한 연표와 전시품의 일부를 보인다^{주2)}.

고조선 시대의 유물로는 연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고인돌무덤, 청동기 유물, 그리고 토기가 대표적이다. 여기에서는 지난 글(세라미스트, 11(3), 109 및 11(4), 157)에서 빠진 고조선의 토기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그런데, 고조선의 영역이 38 이북에 있고, 또 그 유적의 발굴이 50년 대 이후에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자료가 정리되어 있고, 입수 할 수 있는 자료가 한정 되어있어, 앞으로 보완이 요할것으로 본다.

주1) 고조선은 신석기시대로부터 청동기시대를 거쳐 철기시대 까지 오랫동안 존속한 국가로 (BC 2333년~ BC 108년), 고조선의 건국시기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 이견(異見)도 있다.

주2)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박물관이 일반에게 공개된지 100주년이 되는 2009년 11월에 중앙박물관에 고조선실이 개설 되었다.

2. 신석기시대의 토기

신석기시대를 대표하는 토기인 빗살무늬토기는 신석기시대 한반도와 그 주변에 살아온 사람들이 만든 토기로, 전술한바와 같이 우리나라 전역에서 출토되고 있다. Fig. 3~4 는 서북지역에서 출토된 빗살무늬토기이다.

그 형태는 밑이 뾰족하고(V 또는 U 자형), 태토는 운모가 섞인 사질점토이며 석면이나 활석도 섞여 있다. 토기의 겉면에는 아가리, 몸통, 밑면으로 나누어 각기 무늬가 규칙성 있게 점과 선으로 된 기하학적 무늬로 장식되고 있는데, 시대의 변천에 따라 생략되기도 하고 무늬가 줄어드는 등 간략하게 변천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같은 무늬도 있다.)

문양의 물결무늬는 바다의 파도를, 번개무늬는 천둥번개와 같은 상서로운것을 연상케 하고, 그 시대 사람들



Fig. 1. 국립중앙박물관 고조선 자료실 내부.

고조선의 토기

3. 고조선의 토기

고조선은 신석기시대로부터 오랫동안 이어오면서 초기의 민무늬토기로부터 여러 형태의 토기를 남겼는데, 그 중 고조선 시기의 대표적 토기로는 팽이형토기와 미송리식토기를 들 수 있다.

팽이형 토기(Fig. 7)는 밑바닥이 좁고 몸통부분이 조금 볼록하고 아가리부분은 약간 안으로 드리밀어지면서 밖으로 발라부친 겹아가리형태를 가진 팽이모양을 한 토기이다.(이형 팽이형토기도 있다.) 아가리 부분에 짧은 빗살무늬가 있고, 몸통 아래에는 장식이 없다. 태토에 곱돌이 혼합 되어 있다.

1954년에 발굴된 평양 금탄리(金灘里) 유적에서는 최하층에서 빗살무늬토기, 그 위층에서는 무무늬토기, 최상층에서는 팽이형토기 항아리와 단지가 발굴 되었다.

팽이형토기는 주로 서북지방 대동강 유역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있는데(Fig. 8), 한강 이북 지역에서 청청강 이남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고인돌유적지에서, 청동기 유물과 같이 나오고 있으며, 제법이나 형태가 비슷한 거의 동시대의 것이 요동(遼東)에서도 나오고 있다.

팽이형토기는 가장 빠른 경우 기원전 1,000년, 팽이형 토기 문화가 가장 왕성한 시기는 기원전 6세기로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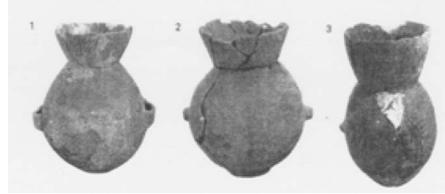


Fig. 9. 미송리식토기(미송리출토).

있다.

압록강 하류 평안북도 의주 미송리(美松里)에 있는 동굴에서 처음 발굴되어 미송리식토기로 불리우는 이 미송리식토기는, 납작한 바닥에 아가리가 벌어지고 목이 있는 단지형 토기로 몸체는 타원형으로 제일 배가 부른 부위에 손잡이가 있는 형태의 것이 대표적이다.(Fig. 9~10) 태토는 사질이 많고, 색깔은 검은색 계이다.

이 동굴은 1959년 발굴 되었다. 동굴 아래층은 기원전 3,000년 후반기의 신석기시대층이고, 윗층은 청동기시대층이다. 신석기시대층에서는 신석기 후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빗살무늬토기 파편이 출토 되었고, 청동기시대층에서는 미송리식토기가 발견 되었다.

미송리식토기는 기원전 10~5 세기의 토기로 돌널무덤에서 출토되며, 청청강 이북지역에서 랴오닝(遼寧)지역 지린(吉林)지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Fig. 11)



Fig. 7. 팽이형토기.



Fig. 8. 팽이형토기의 유적 분포



Fig. 10. 미송리식토기(호남리출토).

